

‘히스토리’로 바라본 점령과 냉전

—아리요시 사와코(有吉佐和子) 『비색(非色)』에 나타난 <전쟁신부>의
전후서사—*

김지영 _ 성균관대학교 성균일본연구소

목 차

- I. 들어가며: 1950년대 ‘재녀(才女)’ 붐과 전후문학사의 젠더편향
- II. 문화냉전과 ‘재녀’의 미국유학
- III. 인종소설로서의 『비색(非色)』: 작품의 수용 양상
- IV. 점령서사와 『비색』
- V. 『비색』이 그리는 동시대 미국 : 인종차별문제를 보는 시좌
- VI. 끝맺으며

국문초록

본고는 전후 미일관계의 표상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젠더적 구도에 주목하면서, 아리요시 사와코(有吉佐和子)의 장편소설 『비색(非色)』(1963)이 그리는 전후 서사를 고찰한다. 전후일본을 대표하는 여성작가 아리요시는 ‘재녀(才女) 붐’이 한창이던 1959년에 록펠러재단의 지원을 받아 일 년 동안 뉴욕에 체재하였다. 아리요시가 귀국 후에 발표한 『비색』은, 점령기에 흑인 GI와 결혼하여 뉴욕 할렘으로 이주한 일본인 ‘전쟁신부’의 시점에서 점령기 일본과 동시대 미국을 그려낸다. 아리요시는 이 작품에서 전쟁신부의 일인칭서사를 통해 국민국가의 서사 안에 자리 잡지 못한 대항적 기억(counter-memory)을 이야기한다. 이는, 미국=점령자

* 본고는 필자의 박사논문 일부를 번역하여 수정가필하였다.

=강자와 일본=피점령자=약자라는 이원적 대립구도에 입각하여 점령을 둘러싼 집단적 기억을 구축하고, 이를 젠더적 구도를 통해 표현함으로써 국민의 일체감을 형성해 온 전후일본의 점령서사의 내셔널 내러티브를 전복시키는 ‘히스토리’로 읽을 수 있다. 또한, 문화냉전의 부산물로 쓰여진 『비색』은 미국사회의 인종차별의 실태를 그리면서 차별이 작동하는 원리를 근원적으로 사고하고자 한 작품으로 주목된다.

주제어

아리요시 사와코, 점령, 냉전, 젠더, 인종

.....

I . 들어가며: 1950년대 ‘재녀(才女)’ 붐과 전후문학사의 젠더편향

1957년 5월 9일자 『산케이시사(産経時事)』에서 문예평론가 우스이 요시미(臼井吉見)는 아리요시 사와코(有吉佐和子), 소노 아야코(曽野綾子), 하라다 야쓰코(原田康子)를 필두로 하는 젊은 세대 여성 작가들의 등장을 언급하면서 “재녀시대의 도래”를 고하였다. 그 후 ‘재녀’는 평단과 대중담론을 막론하고 당대의 유행어로 회자되었다. 이듬 해 4월 10일자 『아사히신문(朝日新聞)』 「천성인어(天声人語)」란에는, “재녀시대라고들 한다. 근래에는 실로 대단한 여성들이 늘었다. 펜 한 자루를 손에 쥐고 혜성처럼 나타나 오랫동안 문필로 고생해온 남성작가를 제치고 초베스트셀러를 낚는 여성도 있다”라는 문구도 보인다¹⁾.

1) 臼井吉見, 「才女時代の到来」, 『産経時事』, 1957.5.9, 10쪽. 우스이 요시미는 아리요

“재녀시대”로 불리는 여성작가의 활약은, 남녀의 교육균등에 크게 힘입은 것으로 전후민주주의의 소산 가운데 하나로 꼽을 수 있다”는 치카미 고우(千頭剛)의 평²⁾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재녀’ 세대의 등장을 전후 여성해방의 성과로 보는 경향은 여전히 뿌리 깊다. 그러나 일견 찬사처럼 보이는 이 표현에 내재하는 남성중심적 시선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재녀’를 둘러싼 50년대의 문단 담론을 분석한 하야 미즈키(羽矢みづき)는, ‘재녀 붐’에 호응한 문단이 1955년에서 65년 사이에 아쿠타가와상(芥川賞)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여성수상자를 나오키상(直木賞)에서 배출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를 “여성 작가가 비정치적인 ‘스토리텔러’로 간주된 하나의 방증”으로서 해석한다.³⁾ 이 같은 시점에 입각하여 전후문학사의 대항적 서사(counter-narrative)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문학사 기술에 내재된 젠더편향에 의해 지위져 온 ‘재녀’들의 문화정치적 비평성을 드러내는 것이 유효한 전략이 될 것이다.

전후 일본의 대표적 여성작가로 꼽히는 아리요시 사와코(1931~1984)는 1956년에 고전예능의 세계를 그린 단편 「지우타(地唄)」로 등단했다.⁴⁾ 그 후 아리요시는 60년대에서 70년대에 걸쳐 시대를 앞서 간 냉철한 비평안과 대중친화적인 서사로 『황홀한 인생(恍惚の人)』, 『복합오염(複合汚

시에게 처음으로 ‘재녀’의 호칭을 부여하였다. ‘재녀’ 아리요시에 언급한 다음의 신문 잡지 기사도 참조. 正宗白鳥, 「今の文壇は才女時代か」, 『婦人公論』, 中央公論社, 1957년 1월, 86-89쪽; 利倉幸一, 「私は発見した, 有吉佐和子の才女ぶり」, 『週刊東京』, 1958.1.18; 福田清人, 「才女才筆—古風な世界に新しい照明あてる」, 『日本読書新聞』 950号, 日本出版協会, 1958.5, 3쪽.

- 2) 千頭剛, 「有吉佐和子—苛烈で優雅な女権宣言の文学」, 『関西文学』, 1996.1, 23쪽.
- 3) 羽矢みづき, 「〈才女〉時代—戦後十年目の旗手たち」, 『リブという革命』, インパクト出版会, 2003.
- 4) 아리요시는 동경여자대학 재학시절부터 가부키의 연극평을 현상(懸賞)논문으로 잡지에 투고하였으며, 대학 졸업 후 잡지 『연극계(演劇界)』 촉탁을 거쳐 1956년에 등단하기까지 일본무용가 아즈마 도쿠호(吾妻徳穂)의 비서로 미국공연에 관여한 바 있다. 따라서 초기의 아리요시의 작품에서는 전통예능이 중요한 주제를 이룬다.

染』 등의 초베스트셀러를 연이어 낳는다. 아리요시에 관한 일반적 평가는 ‘재녀(才女)’ 또는 ‘스토리텔러’와 같은 수식어로 요약된다. 종래의 문학사에 있어서도 아리요시는 ‘여성작가’라는 틀 안에서 일정한 평가를 부여받는 한편 중심서사로부터 격리된 채 단편적인 언급에 그쳐 왔다. 본고의 시도는 아리요시의 문학이 동시대 언설과 갖는 길항관계를 복원함으로써 이를 전후 일본의 담론구도 속으로 복권시키고자 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아리요시가 1963년에 발표한 장편소설 『비색(非色)』에 나타난 전후서사에 주목하고자 한다. ‘비색(非色)’이란, "색이 아니다(not because of color)"라는 뜻을 담아 작가가 만든 조어이다. 이 작품은 점령기에 흑인 GI와 결혼하여 뉴욕 할렘으로 이주한 일본인 ‘전쟁신부(war bride)’의 눈을 통해 점령기 일본과 동시대 미국을 그려낸다. 종래 일본문학사에서 『비색』은 인종문제를 다룬 이색적인 작품으로 언급되어 왔다. 하지만 본론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일본에 있어 미일관계는 비단 문학에서 뿐 아니라 전후서사의 기축을 이루어 왔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아리요시 작품이 지닌 동시대 담론과의 길항관계가 드러나는 중요한 작품으로 주목된다.

미일관계의 표상이라는 관점에서 작품을 바라볼 때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작품이 작가의 미국 유학 후에 발표되었다는 점이다. 아리요시는 ‘재녀 붐’이 한창이던 1959년 11월에 록펠러재단(The Rockefeller foundation)의 초빙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일 년간 뉴욕에 체재하였는데, 재단의 유학지원을 통한 미국체재는 당대의 일본문학자들에게 널리 공유된 문화냉전의 체험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실에 입각하여 본고에서는, 미일관계의 표상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젠더적 구도에 주목하면서, 전후담론의 편성에 작가 아리요시와 그녀의 작품이 교차하는 양상을 고찰할 것이다. 이를 통해 문화냉전에 대한 응답으로 쓰여진 『비색』을 점령의 기억을 다시 쓰는 대항서사

로 읽어냄으로써 아리요시가 시도한 내셔널 히스토리로서의 전후사에 대한 대항적 글쓰기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쟁신부의 시점에 입각한 작품의 서사(‘히스토리’)가 전후 일본인의 국민사(내셔널 히스토리)적 기억에 어떻게 균열을 일으키는지를 살피게 될 것이다.

II . 문화냉전과 ‘재녀’의 미국유학

우선 『비색』 집필의 계기가 된 작가의 미국체험을 살펴보자

아리요시에게 미국유학의 기회를 제공한 록펠러 재단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된 1950년대에 일본에서 다방면에 걸친 필란트로피를 통해 미일문화관계를 재건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일환으로 재단은 53년에 일본의 문학자를 대상으로 일년간의 미국유학을 지원하는 창작펠로우십(Creative Fellowship) 프로그램을 개시한다. 이를 통해 60년대 초까지 아리요시를 포함하여 오오카 쇼헤이(大岡昇平), 아가와 히로유키(阿川弘之), 고지마 노부오(小島信夫) 등의 작가와 후쿠다 쓰네아리(福田恆存)와 에토 준(江藤淳)등의 비평가를 포함한 저명한 전후문학자들이 재단의 초빙을 받아 미국 각지로 파견되었다.

록펠러재단 아카이브(The Rockefeller Foundation Archives) 문서를 비롯한 제반 자료에 따르면, 초청된 문학자들은 각자의 흥미에 따라 유학의 주제를 정하여 자유롭게 미국을 체험하였다. 재단은 펠로우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미국체제가 유익한 경험이 되도록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유념해야할 점은, 일견 비정치적으로 보이는 이 같은 문화교류의 배후에는, 냉전기의 국제정세를 명백히 의식한 문화정치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창작 펠로우십은 친밀하고 관대한 지원을 통해 일본의 문학자들을 포섭함으로써 공산주의에 대항하고자

한 미국의 문화냉전적 기획이었던 것이다⁵⁾.

1959년 재단의 여덟 번째 펠로우로 도미한 아리요시는, '연극 연구'를 유학의 주제로 제출하고 브로드웨이와도 가까운 뉴욕주 교외에 위치한 명문사립여자대학 세라 로렌스 칼리지(Sarah Lawrence College)에 체재하였다. 후년 아리요시는 당시를 회상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재단의 유학 지원제의를 받았고 “당시 나는 국외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에 앞뒤 가리지 않고, 예기치 않게 주어진 기회를 두 말 없이 받아들였다”고 유학의 경위를 밝힌 바 있다.⁶⁾ 전후 여성을 대표하는 ‘재녀’에게 매스컴은 과도한 관심을 보였고, 그 무렵 아리요시는 소설 뿐 아니라 수필, 연극, TV드라마의 각본 등 장르를 넘나들며 다방면으로 활약하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아리요시는 “나 자신을 잃어버릴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낄 때가 많았다고 후년 회고한 바 있다⁷⁾. 때마침 주어진 미국 유학은 아리요시에게 작가로서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였다.⁸⁾

유학기간 동안 아리요시는 세라 로렌스 대학의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뉴욕 안팎의 연극계 인사들과 교제하였다.⁹⁾ 또한 그녀는 재미(뉴욕) 일본

5) 록펠러재단의 창작펠로우십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金志映, 「ポスト講和期の日米文化交流と文学空間－ロックフェラー財団創作フェローシップ(Creative Fellowship)を視座に」, 『アメリカ太平洋研究』, 2015.3을 참조.

6) 有吉佐和子, 「NOBODYについて」, 『坂西志保さん』編集世話人会, 『坂西志保さん』, 国際文化会館, 1977, 221쪽.

7) 岡本和宜, 「年譜」, 井上謙·半田美永·宮内淳子 編, 『有吉佐和子の世界』, 翰林書房, 2004, 285쪽.

8) 아리요시는 “소설가로 일생을 보낼 계획을 면밀히 세울” 심산으로 도미하였고, “일년 후 일본에 돌아왔을 때 나는 이전보다 백배나 강한 의지로 작가가 되고자 하였다”고 회상한 바 있다. 뉴욕에서 아리요시와 교류한 아카시 야쓰시(明石康)는 “9개월간의 뉴욕 생활은 그녀를 인기작가로서의 부담과 긴장으로부터 점차로 해방시켰다”고 회고한다. 有吉佐和子(1977), 221~222쪽; 明石康, 「有吉佐和子のニューヨーク」, 井上謙·半田美永·宮内淳子(編), 『有吉佐和子の世界』, 翰林書房, 2004, 156쪽.

9) 아리요시는 뉴욕에서 배우양성소 Actor's Studio, 미국의 저명한 여성연극평론가 Rosamond Gilder 등과 교류하였다. 활동범위는 뉴욕에 한정되지 않고 캐나다

인 커뮤니티의 국제연합, 외무성, 정치·경제계, 학계, 보도기관, 문화예술 관계자들과 폭넓게 교류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넓혀나갔다. 당시 국제연합에서 근무하던 아카시 야쓰시(明石康)는 뉴욕에서 그녀가 “신생중국의 행보와 미국의 인종문제, 히로시마의 원폭 등”의 문제에 폭넓게 관심을 가졌으며,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을 알기 위해 (….) 인종운동가 맥컴X가 암살된 할렘 극장을 방문하기도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¹⁰⁾ 이러한 경험은 아리요시의 초기 작품을 이루는 전통예능의 주제와 대하소설의 계보에서 사회파 주제로 작품세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¹¹⁾

한편, 당시 작가로서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방송에도 출연하며 ‘매스컴의 총아’로 인기를 누리던 아리요시의 도미를 당대의 주간지는 일제히 보도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미디어의 표상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점은 젠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재녀 유학—아리요시사와코씨의 도미」(『주간 아사히』), 「재녀여 안녕」(『주간공론』) 등의 제목을 단 기사가 주요 주간지의 지면을 장식하였다.¹²⁾ 아리요시는 록펠러재단

Ontario주 Stratford에서 개최되는 셰익스피어 연극제의 세미나에도 참여하였으며, 런던에서는 영국의 극작가 Christopher Fry와 면회하였다. 브로드웨이에서 푸에르토리코이민을 소재로 한 뮤지컬『웨스트사이드 스토리(West Side Story)』를 관람한 공연은 소설 『비색』, 『푸에르토리코 일기』의 집필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Folder Ariyoshi Sawako, box 11, series Fellowship Files, RG10.1, Rockefeller Foundation Archives, RAC, Sleepy Hollow, N.Y.

10) 明石康(2004), 158쪽.

11) 아리요시의 작품세계는 크게, 전통예능의 세계를 그린 계통, 여성을 중심으로 가계(家系)를 그려내는 대하소설 계통, 사회적 경향을 지닌 계통의 작품으로 분류된다. 아리요시가 1966년에 “작가로서의 자세는 이렇게 해서 차츰 분명해졌다. 작품에도 『비색』, 『푸에르토리코 일기』 등 지금까지 나의 빛깔이라고 여겨져온 컬러와는 다른 것들도 생겨났다. 이제서야 12세까지 외국에서 자란 나의 특징이 조금 얼굴을 내밀기 시작한 것이다”라고 발언한 사실은, 미국유학이 작가 아리요시 형성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했음을 짐작케 한다. 有吉佐和子, 「あゝ十年」, 宮内淳子 編, 『作家の自伝 109・有吉佐和子』, 日本図書センター, 2000, 190쪽.

12) 「才女留学—有吉佐和子さんの渡米」, 『週刊朝日』, 朝日新聞社, 1959.11.22; 「才女よ, さようなら」, 『週刊公論』, 1959.12.

펠로우 가운데 아동문학가 이시이 모모코(石井桃子)를 제외한 유일한 여성작가였다.

아리요시가 현지에서 유학하는 모습은 도미 다음 달에 『주간 신초(週刊新潮)』를 통해 그라비아 사진과 함께 보도되었다. 명문여자대학 세라 로렌스 칼리지에서 미국인 학생들과 함께 “미국인의 사상과 생활에 관한 강의”를 받는 교실 풍경이라든지, “칼리지의 식당에서 친구들과 차를 마시는 모습”, “사회학 연구그룹 학우들과 토론하는” 모습 등의 사진이 지면을 장식하였다. 또한 기사는 유소년기를 네덜란드 점령 하 인도네시아에서 보낸 아리요시의 이력을 언급하며, “소학교 시절을 슬라바야와 자카르타에서 보낸 그녀는 영어에 매우 능통”하다고 전하면서 아리요시의 국제적인 적응 능력을 칭찬하기도 한다. 현지에서는 “벌써 친한 친구들도 생겨” “젊은 미국인 학생들과 조용한 기숙 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아리요시의 근황을 전하는 기사에는, 그녀의 높은 적응력은 “어디에 가더라도 가련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성”이며 “능숙하게 대처하는 재녀”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얼핏 보기에도 모순적인 설명까지 달려 있다.¹³⁾

이러한 미디어 표상은 독자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졌을까. 먼저 ‘재녀’의 등장에 전후 여성해방의 성과를 읽어내는 입장에서 보자면, 아리요시의 현지 활약을 전하는 이들 기사는 그야말로 전후 지위가 크게 향상된 일본 여성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와 동시에 현지 대학에서 미국인 여대생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배우고 교류하는 아리요시의 모습을 담은 그라비아 잡지 지면은, 미일 양국의 친선과 일본인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미국의 인종적 관용을 현시하는 시각적 표상으로도 기능했던 것은 아닐까.

이와 같이 아리요시의 유학을 둘러싼 일본 언론의 보도에는, 일본 내의 젠더관계와 냉전기 미일관계를 둘러싼 표상의 역학이 다층적으로 엮

13) 「有吉佐和子のアメリカ留学」, 『週刊新潮』, 1959.12.21.

히며 작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GHQ가 점령개혁의 핵심정책으로 내건 것이 여성해방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일본여성의 지위향상이야말로 미국의 점령정책의 성공을 증거하는 중요한 지표였으며, 향상된 지위를 발판 삼아 일본인 여성이 미국과 우호관계를 맺는다는 상보적 담론구도 역시 성립한다. 이는 점령으로부터 독립한 일본과 동맹관계를 구축하고자 한 미국의 냉전전략과, 강화 후에 등등한 지위로서 국제사회로의 복귀를 꾀하던 일본국민의 욕구에도 부합하는 서사였을 것이다.

이렇듯 록펠러재단의 유학지원 프로그램은 미일 간 친선을 촉진하고 동시에 연출하기 위해 마련된 무대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귀국 후에 아리요시가 발표한 작품은, 이러한 상호조화적인 담론구도에 입각한 미일관계의 전후 서사를 크게 전복시키는 시좌를 담고 있었다. 아리요시가 『비색』을 통해 이야기한 것은, 이러한 미일문화교류의 화려한 무대 이면에 가려져 온 또 하나의 미일관계사이다. 다음 장에서 이러한 측면을 살펴보기로 한다.

Ⅲ. 인종소설로서의 『비색(非色)』 : 작품의 수용 양상

아리요시 사와코의 미국 체험은 직접적으로는 두 편의 소설작품으로 결실을 맺는다. 귀국으로부터 3년 후에 연재가 시작된 『비색』은 흑인 진주군 병사와 결혼하여 뉴욕 할렘으로 건너간 '전쟁신부'의 시점에서 '미국'을 그린 작품으로, 당시의 인종문제의 실태를 그려냈다. 이듬 해 발표된 소설 『푸에르토리코 일기(ぶえるとりこ日記)』는, 세라 로렌스 대학의 학우들과 떠난 푸에르토리코 견학여행에서 모티브를 얻어 집필된 작품으

로, 편견 문제를 추궁하였다. 이 두 작품으로 인해 아리요시는 미국 유학으로부터 인종문제라는 새로운 테마를 가지고 귀국했다고 평가 받는다.¹⁴⁾ 이 중 사회파 주제에 입각한 아리요시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비색』은, 1963년 4월부터 이듬 해 6월까지 종합잡지 『중앙공론(中央公論)』에 발표된 후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 소설의 플롯은 다음과 같다.

주인공 하야시 에미코(林笑子)는 패전 직후에 진주군 전용 카바레의 클로크에서 일하면서 흑인 GI 톰(토마스 잭슨)과 교제하게 된다.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톰과 결혼한 에미코는 패전 직후의 궁핍한 일본에서 미군의 PX물자로 부족함 없는 결혼생활을 보내게 되며, 이 둘 사이에서 장녀 메리가 태어난다. 하지만 이윽고 점령이 종결되고 톰은 본국으로 송환되어 뉴욕으로 돌아간다. 에미코는 처음에는 일본에 남을 생각이었으나, 메리가 주위로부터 ‘혼혈아리는 이유로 차별받는 모습을 보고 도미를 결심한다.

그런데 세계 제일의 번영을 누리는 미국의 대도시 뉴욕에서 이 모자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처참한 빈곤생활이었다. 할렘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에미코는 미국사회의 냉혹한 인종차별의 현실을 목도한다. 이탈리아계와 유대계는 백인 중에서도 차별을 받고, 흑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혹독하며, 푸에르토리코인은 흑인보다 더한 차별을 겪고 있다. 흑인에 대한 차별 때문에 좋은 직업을 구할 수 없는 톰은 병원에서 야간 잡역부(雜役夫)로 일하지만 그 수입은 반지하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일가족을 부양하기에도 부족하다. 에미코는 일식 레스토랑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면서 힘껏 일가족을 부양한다. 하지만 세 명의 자녀들이 잇따라 태어나면서 그

14) 井上健, 「日本女性作家たちの外国との関わり——一九六〇年代の大庭, 有吉, そして倉橋を中心に」, 児玉実英・杉野徹・安森敏隆(編), 『二〇世紀女性文学を学ぶ人のために』, 世界思想社, 2007, 44쪽.

들의 생활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

에미코가 일하는 레스토랑에는 그녀 외에도 미국으로 건너오는 배에서 만난 세 명의 전쟁신부가 웨이트리스로 일하고 있다. 각각 이탈리아계 백인, 흑인, 푸에르토리코인과 결혼한 그녀들 역시 뉴욕에서 저마다 이에 상응하는 계층을 접한다. 그 가운데 유복한 집안 출신으로 아름다운 용모를 지닌 레이코(麗子)는 일본에서 그리던 미국 생활과 푸에르토리코인의 아내로서 마주한 처참한 현실 사이에서 그 격차를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하고 만다.

한편 에미코는 굳세게 살아간다. 어느 날 톰의 남동생이 남부 앨라배마에서 일자리를 찾아 뉴욕으로 온다. 이러한 상황이 계기가 되어 에미코는 유대계미국인 대학교수와 유엔에 근무하는 일본인 여성 부부의 가정에 기거하면서 메이드로 일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차별과 편견이 지배하는 현실을 직시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도 흑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있음을 깨닫게 된 에미코는 마지막에 ‘니그로’¹⁵⁾의 아내이자 어머니인 자신을 받아들이고 스스로가 ‘니그로’의 일원이 되어 흑인들 사이에서 살아갈 것을 힘차게 결심한다.

이와 같은 줄거리에서 알 수 있듯이, 『비색』을 통해 작가는 차별문제를 철저하게 추궁하고 그 처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그려내고자 하였다. 소설은 발표 당시부터 주로 미국 내 인종문제를 다룬 소설로서 주목받았다. 공민권운동이 한창이던 시기에 발표된 작품의 서평은 하나같이 ‘인종소설’로서 이 소설을 조명하고 있다. 한 예로 다음은 야스오카 쇼타로(安岡章太郎)의 서평이다.

솔직히 말해서 이 소설의 문학적 가치는 그다지 높지 않을 수도 있

15) ‘니그로’라는 표현은 현재는 차별어에 해당하지만, 본고에서는 작품 발표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작품의 인용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다. 하지만 좁은 의미에서의 문학이 해내지 못하는 무언가를 이 소설은 갖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일독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라 하겠다. 요컨대 한 마디로 ‘인종문제라 일컬어지는 것 안에 얼마나 복잡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지는 흔한 흑인문제 연구서보다 이 책 속에 훨씬 적확하게 제시되어 있다고 하겠다. 스토클 부인은 『툼 아저씨의 오두막』을 통해 노예해방에 백만 명의 원군(援軍)을 동원했다고 이야기되는데, 아리요시 여사의 이 소설에도 무언가 이와 공통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게 하는 힘이 있다.¹⁶⁾

아리요시와 마찬가지로 록펠러재단의 지원을 받아 1960년에 남부 테네시주 네쉬빌(Nashville)에 체재한 야쓰오카가 이 서평을 기고한 사실은 그 자체로 흥미로우나, 인용한 서평은 『비색』에 관한 전형적인 독해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즉, 인종문제—그 중에서도 미국의 흑인문제—에 관한 입문서나 도덕교본과 같은 것으로서 작품의 의의를 논하는 입장인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도 『비색』은, “흑인생활의 전모와 인종문제에 천착한 일본 최초의 소설”이라고 작품의 의의를 규정한 데오도르 구센을 필두로 한 많은 논자가 인종적 관점에서 이 작품에 주목해 왔다¹⁷⁾. 『비색』이 일본문학사에서 접하는 독특한 위치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독해에는 의의가

16) 安岡章太郎, 「戦争花嫁通した黒人問題—有吉佐和子『非色』」, 『週刊朝日』, 1964.9.25, 93쪽. 야쓰오카의 서평 외에, 井上俊夫, 「人種問題を告発—有吉佐和子著『非色』」, 『日本読書新聞』, 1964.9.7, 5쪽; 大橋健三郎, 「日本人の見た人種問題—有吉佐和子『非色』」, 『朝日ジャーナル』, 1964.10.4; 林房雄, 「文芸時評—現代と取り組む『非色』」, 『朝日新聞』, 1954.6.27 등의 서평이 인종소설로서 『비색』을 소개하였다.

17) セオドア・グーゼン, 「檻のなかの野獣」, 平川祐弘・鶴田欣也(編), 『内なる壁』, TBSブリタニカ, 1990, 542쪽. 인종문제를 다룬 소설로서 작품을 논한 논고로, 本田創造, 「有吉佐和子選集 月報5 『非色』の世界」, 『有吉佐和子選集』 제8권, 新潮社, 1970; 沢田章子, 「『非色』から『海暗』まで」, 『民主文学』, 1970.6; 浜本武雄, 「人種問題へのアプローチ—有吉佐和子『非色』をめぐる」, 『二十世紀文学』, 1964・9 등도 참조.

있다 하겠다. 하지만 오로지 '인종소설'로서 『비색』을 읽어 온 종래의 담론은 작품이 지닌 비평성을 온전히 대변해온 것일까?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미국에서 귀국한 아리요시가 동시대 미국의 인종문제의 현실과 과거의 점령 역사를 동시에 조망하면서, 이를 한 전쟁신부의 개인사를 통해 풀어냈다는 사실이다. 흑인이 차별의 대상이 되었듯이, 전후 일본에서 진주군 병사와 결혼한 전쟁신부 여성들 역시 차별적 시선을 견뎌야만 했으며, 그 중에서도 흑인과 결혼한 여성은 이중의 차별을 겪어야만 했다. 이러한 역사에 비추어 본다면, 에미코의 독백이 그려내는 인종문제의 실태와 인종표상의 정확성, 윤리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만을 문제 삼아 온 이 작품에 대한 수용방식은 그 의도 여하를 막론하고 전쟁신부의 목소리를 소외시켜왔다고 해야 할 것이다.

1950년대 말까지 4만~5만 명에 이르는 일본인 여성이 미군병사와 결혼하여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추정된다¹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의 경험은 전후 일본의 국민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하지 못했다.¹⁹⁾ 아리요시는 『비색』에서 전쟁신부의 일인칭서사를 통해 국민국가의 서사 안에

18) 安富成良, 「アメリカの戦争花嫁へのまなざし—創出される表象をめぐる—」, 島田法子(編), 『写真花嫁・戦争花嫁のたどった道—女性移民史の発掘』, 明石書店, 2009, 151쪽. 단, 미군병사와 결혼하여 미국에 입국한 여성의 수에 관한 정확한 통계는 없어 논자에 따라 그 수는 다르게 추정되고 있다. 이를테면 다케시타 슈코(竹下修子)는 1952년에서 1959년까지 미국에 입국한 전쟁신부의 수를 약 1만 9,900명~2만2,400명으로 추산한다. 竹下修子, 『国際結婚の社会学』, 学文社, 2000.

19) 진주군병사와 결혼한 여성들의 체험은 2000년대 이후에 진척된 연구에 의해 발굴되고 있으며, 여성들 스스로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그 실상이 알려지고 있다. 미국으로 이주한 전쟁신부들의 실태를 조명한 선구적 시도로는 江成常夫, 『花嫁のアメリカ』, 講談社, 1981을 들 수 있다. 2000년도 이후에는 야쓰도미 나루요시(安富成良)를 중심으로 연구가 크게 진전되고 있다. 주요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다. 島田法子(編), 『写真花嫁・戦争花嫁のたどった道—女性移民史の発掘』, 明石書店, 2009; 安富成良・スタウト梅津和子, 『アメリカに渡った戦争花嫁—日米国際結婚バイオニアの記録』, 明石書店, 2005; 林かおり・田村恵子・高津文美子, 『戦争花嫁—国境を越えた女たちの半世紀』, 芙蓉書房出版, 2002; 植木武(編), 『「戦争花嫁」五十年を語る—草の根の親善大使』, 勉誠出版, 2002; 竹下修子(2000).

자리 잡지 못한 대항적 기억(counter-memory)을 이야기한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종래 인종소설로서 읽혀 온 『비색』을 전쟁신부의 목소리에 의한 점령서사로서 주목할 것이다.

에미코의 목소리와 아리요시의 시도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품에 앞서 우선 점령과 여성, 그리고 표상 사이의 상관관계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금 우회하여 먼저 점령기로 거슬러 올라가 ‘성’을 둘러싼 여성들의 체험과 1950년대까지의 점령 표상을 살펴본 후에 소설 텍스트를 분석하기로 한다.

IV. 점령서사와 『비색』

1. 국민국가의 이야기로서의 점령서사: 여성의 피점령체험과 내셔널한 표상

패전에 이은 외국 병력의 진주라는 일본 역사상 유래 없는 사태는 ‘성(性)’을 둘러싼 불안을 야기하였다. 미군이 진주하면 “남자는 거세당해 육체노동에 동원될 것이다. 여자는 겁탈당할 것이다”라는 식의 유언비어가 항간에 퍼져나갔다.²⁰⁾ 패전으로부터 2주가 지난 8월 23일 『아사히신문(朝日新聞)』에는 「진주 후의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으로 7개의 항목이 게재되었다. 그 가운데 무려 4개의 항목이, “부녀자는 일본 부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외국 군인들에게 틈을 보여서는 아니된다,” “외국 군인이 ‘헬로우’라든지 ‘헤이,’ 혹은 서투른 일본어로 말을 걸더라도 부녀자는 상대하지 말고 피할 것”과 같은 부녀자를 향한 권고였다. 진주군 병사의 폭행을 염려하여 부녀자들의 소개(疎開)령이 발령되는 소동도 있었다.²¹⁾

20) 도우스昌代, 『マッカーサーの二つの帽子』, 講談社, 1985, 19쪽.

그러나 여기서부터 점령을 둘러싼 일반적 서사는 크게 반전된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밝고 친절하고 생기 가득한 점령군 병사와 온순하고 예의바른 피점령자의 예기치 못한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어제까지 적국관계였던 점령자와 피점령자는, 이윽고 서로를 우호적인 협력자로서 발견하게 된다. 게다가 여성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마련되어 있었다. 정치참가와 가정 내 남녀평등을 원칙으로 하는 부인해방은 점령군이 내건 5대 개혁 가운데 하나였다.²¹⁾ 젠더의 시점에서 점령을 바라볼 때 '좋은 점령'이라는 평가가 우세한 까닭이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 서사는 여성들의 다양한 점령체험을 담아내고 있을까?

여기서 다시 패전의 시점으로 돌아가 보자. 일본 국가는 외국 병사가 대거 진주해 오는 미증유의 국가적 비상사국에 대응하여 '성'을 통제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종전으로부터 단 3일 만인 8월 18일 내무성(內務省) 경보국(警保局)장 하시모토 마사미(橋本政美)의 이름으로 각 도도부현의 장관에게 진주군 병사용 '외국군주둔지의 성적위안시설'을 신속히 설립하라는 내용의 통첩이 전달되었다. 그리하여 8월 28일에는 미군의 가나가와(神奈川) 상륙에 맞춰 다음과 같은 성명과 함께 특수위안협회(RAA, Recreation and Amusement Association, 이하 RAA로 약칭)가 설립되었다.

『쇼와(昭和)의 오키치(お吉)』 수천 명의 제물 위에 광란(狂瀾)을 막기 위한 방파제를 쌓아 민족의 순결을 호지배양(護持培養)하며, 전후 사회질서의 근저에 보이지 않는 지하 기둥으로 삼고자 한다.²²⁾

21) 竹下修子(2000), 87쪽.

22) 구체적으로는 여성정책의 핵심이었던 부인참정권 부여와 더불어 신헌법 제24조에 규정된 결혼의 자유, 부부동권,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 원칙에 따라 이에(家)제도가 해체되었으며, 가정 내 양성 간 평등이 촉진되었다.

23) 정식 명칭은 「외국군주둔지에서의 위안시설에 관한 통첩(外國軍駐屯地における慰安施設に関する通牒)」。 성명문은 도우스昌代(1985), 19쪽에서 재인용. 지면 관

이 성명문에는 다양한 층위에서 배제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 첫째, 미국인과 일본인 사이에 '인종격리'를 피한 일본 측의 인종주의를 지적할 수 있다.²⁴⁾ 나아가 이러한 인종주의는 위안시설을 백인용과 흑인용으로 구분하는 인종차별의 재생산으로도 나타났다. 동시에 RAA는 일본여성을 가정의 정숙한 부인과 매춘부로 이원화하여 '민족' 경계선 안팎의 '성' 질서를 관리하고자 하는 모순적 시도이기도 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방파제'는, 점령국가와 피점령국가의 국민, 황색인종과 백색/흑색인종, 그리고 서로 다른 출신계급의 여성들을 분절화하고 격리하는 분단선이었다고 할 수 있다.

RAA에서 일하는 여성들 역시 '일본여성'이었다는 점에서 성명의 논리적 모순은 명백하다. 그런데, 패전을 맞은 일본이 가장 먼저 '성'의 관리에 착수하면서 점령군 병사와 가까이 접촉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지우려고 한 사실은 이후의 점령서사를 생각하는 데 있어 매우 시사적인 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점령군(미군) 병사와 짝을 이룬 일본여성을 통해 점령을 표상하고 기억하는 서사가 수없이 양산되었기 때문이다.

마이크 몰라스키를 비롯한 많은 논자들이 지적하였듯이, 일본과 미국의 관계를 남녀관계에 빗대어 표현하는 젠더적 비유는 미일양측에서 빈번히 사용되어 왔다²⁵⁾. 이러한 비유에 의해 작동하는 상상력 속에서 미

계상 성명문의 일부만을 인용하였다. 성명문에 있는 '오키치(お吉)'란, 페리제독의 내항으로 일본이 개항한 후 미일수호조약 체결을 위해 내일한 타운젠트 해리스 초대 미국총영사에게 첩으로 제공된 여성이다. RAA의 설립에서 폐지까지 경위 및 전모에 관해서는 坂口勇造(編), 『R・A・A協會沿革誌』, RAA協會, 1949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 24) 有賀夏紀, 「アメリカ古領軍向け「慰安施設」に見られるジェンダー・人種・階級—R A Aをめぐって」, 瀧田佳子(編), 『太平洋世界の文化とアメリカ—多文化主義・土着・ジェンダー』, 彩流社, 2005, 96-97쪽.
- 25) 마이클·모라스키, 「アメリカと寝る, とは—被占領体験の表現をめぐって」, 『図書』, 1998, 12; 鈴木直子, 「一九五〇年代をジェンダー・メタファーで読みかえる」, 川村湊・加納実紀代 외 編, 『「戦後」という制度—戦後社会の「起源」を求めて』, インパクト出版会, 2002; 조정민, 『만들어진 점령서사』, 산지니, 2009 등을 참조.

국은 강자=남성의 위치를 점하며 일본은 여성=약자 측과 겹쳐진다. 성적 뉘앙스를 다분히 풍기는 이 비유는 오리엔탈리즘적 시선과도 친화성을 갖는데, 특히 점령담론에서 이러한 미일관계를 체현하는 존재로 호명되어온 이들이 ‘팡팡’이라는 멸칭(蔑稱)으로 불리던, 외국병사를 상대로 성을 파는 여성이다.²⁶⁾ 점령을 둘러싼 국민적 기억 속에 수없이 등장하는 이들 여성들은, 순혈(純血)/순결(純潔) 이데올로기와 결부된 점령 하 내셔널리즘과 젠더 규범을 침범하고, 점령군과의 관계 속에서 획득한 물질적 풍요로움으로 인해 국민적 적의와 선망을 한 몸에 받게 된다.

주지하듯 점령기에 GHQ는 프레스 코드(Press Code for Japan)를 발부하고, 신문, 잡지, 서적 등 모든 출판물을 대상으로 검열을 실시하였다. 검열의 기준을 적시한 키 로그(Key Log)에는 점령군과의 “(이성 간의)친밀성(fraternization)”의 묘사를 금지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령군과 일본인 간의 ‘친밀성’의 묘사를 둘러싸고는 검열망을 뚫으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점령군과 접촉하는 여성들의 묘사가 미일관계를 둘러싼 표상 투쟁의 장이었음을 시사한다. 검열과 점령이 종결된 후에 이러한 표현은 더욱 직접적으로 표면화되어 1950년대에는 ‘팡팡’ 여성들에 관한 다큐멘터리, 수기, 소설 등의 범으로 이어진다.²⁷⁾ 1950년대를 미일관계를 둘러싼 젠더적 표현의 전성기로 보는 몰라스키는, 여성들의 체험을 내셔널한 은유로서 전유하는 이들 서사가 “무구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이미지를 약취(略取)하고, 그녀들의 고뇌를

26) ‘팡팡’ 여성들은 ‘밤의 여자,’ ‘어둠의 여자’로도 불렸으며, 상대의 특정/불특정 여부에 따라 ‘온리/버터플라이’로 불리기도 했다.

27) Michael S. Molasky, *The American Occupation of Japan and Okinawa: Literature and Memory*. London, New York: Routledge, 1999(마이클·모라스키,鈴木直子 訳, 『占領の記憶/記憶の占領-戦後沖繩・日本とアメリカ』, 青土社, 2006). 다나카 기미코(田中貴美子)라는 실재하는 RAA 창부의 수기로 출판된 『여자 방파제(女の防波堤)』, 第二書房, 1957에 관해 몰라스키가 실제로는 남성에게 의해 쓰여진 픽션이라는 사실을 연구조사를 통해 밝힌 사실은 여성표상의 전유를 고찰하는 데 있어 매우 시사적이다.

공유된 국민적 체험으로 표상함으로써 일본의 패전에 수반하는 명백히 '남성'적 굴욕감을 교묘히 은폐"한다고 분석한다.²⁸⁾

문학 영역에서는, 점령기 검열 하에서 발표된 이시카와 준(石川淳) 「황금전설(黄金伝説)」, 다무라 다이지로(田村泰次郎) 「육체의 문(肉体の門)」 등의 소설이 검열을 피해 작품 속 여성과 미군과의 관계를 암시하고자 했다면, 야스오카 쇼타로 「유리 구두(ガラスの靴)」 「하우스 가드(ハウス・ガード)」, 고지마 노부오(小島信夫) 「아메리칸 스쿨(アメリカン・スクール)」,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 「인간 양(人間の羊)」 등 1950년대의 문학작품에는 창부, 메이드, 영어교사와 통역 등 미국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여성들이 빈번히 등장한다. 이러한 서사가 점령을 벗어나 새로운 국가 아이덴티티의 구축을 피하던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스즈키 나오코(鈴木直子)의 지적은 주목된다.²⁹⁾

이렇듯 전후일본의 점령 서사는 외국 병사와 접촉하는 여성들의 실재하는 목소리를 소거하는 한편으로, 표상의 층위에 있어서는 미국에 종속된 일본여성의 이미지에 의거하여 일본과 미국의 관계를 강자와 약자 간의 이항대립구도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 국민적 심정을 환기하고 집단적 일체감을 형성하는 내셔널 내러티브가 양산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50년대 점령표상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1963년에 연재가 시작된 『비색』의 서사는 어떻게 읽혀질 수 있을까? 『비색』에서 아리요시는 배제되거나 대상화되어 온 전쟁신부의 목소리를 소환한다.

28) 마이크·모라스キー(2006), 229쪽.

29)鈴木直子(2002) 참조. 외국 지배자에 의한 위협을 말하고 열등감을 표명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국민으로서의 감정을 동원하여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재구축하는 강력한 기반이 될 수 있다.

2. 다시 쓰는 점령의 기억: 전쟁신부의 ‘허스토리’

1) 전쟁신부의 목소리를 통한 점령서사

점령을 둘러싼 전후일본의 집합적 상상력에서 전쟁신부는 ‘팡팡’이라 불려온 여성들과 가까운 위치에 있다. 적국 병사와 결혼한 그녀들은 외국 병사와 성적 친밀성을 지닌 정숙치 못한 여성으로 낙인찍히거나, 또는 빈 궁한 시기에 국가를 버린 배반자로서 노골적인 적의 표적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앞서 인용한 RAA의 선언문에서 “보이지 않는 기둥으로 삼고자 한다”는 표현이 명백히 외국 병사와 성적관계를 가진 여성들의 목소리를 지우고 있었듯이, 종래 점령사의 표면에 전쟁신부의 목소리가 부상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전쟁신부가 스스로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비색』의 내러티브는 그러한 ‘침묵’ 위에 성립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비색』을 읽을 때, 전쟁신부 에미코가 스스로의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소설 첫머리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에미코의 일인칭서사는 전시에서 전후로의 전환기를 현재의 시점에서 회고하면서 시작된다.

나는 내 생애에 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없는 딸, 편부모 슬하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에 얼마든지 그 예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난했다는 것 역시 특별히 드문 일은 아니다. 동생보다 외모가 못났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글로 써서 호소해야 할 비극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니 나는 이러한 것들을 여기에 늘어놓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³⁰⁾

스스로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첫 마디

30) 有吉佐和子, 『非色』, 中央公論社, 1964, 3쪽. 이하 『비색(非色)』의 인용문은 모두 이 단행본 초판본을 따른다.

는, 역설적으로 일인칭인 “나”가 스스로의 목소리로 발화하기 시작했음을 부각시킨다. 무겁게 입을 연 에미코는, 자신의 라이프 히스토리를 이야기 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세상에 얼마든지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는 평범한 “나”가 뉴욕의 “니그로”³¹⁾로서 살아가기로 결심하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이다. 그리고 그녀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익숙한 점령 풍경은 다른 모습을 드러낸다.

사토 이즈미(佐藤泉)가 『비색』이 그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의 불가분한 전체로서의 미국이 아닌 복수(複數)의 미국, 미국 내외를 가로지 르는 복수의 차이(差異)의 경계선”이라고 지적하였듯이,³²⁾ 에미코의 눈은 ‘일본’과 ‘미국’ 사이에 내재하는 다양한 분할선을 주의 깊게 포착한다. 흑 인병사와 결혼하여 뉴욕으로 건너간 전쟁신부로서 다양한 차별을 경험한 후에 회상되는 에미코의 이야기는, 본질주의적 사고와 길항하면서, 개개 인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差異)의 분할선이 어떠한 문맥에서 부상 하며 선택적으로 의미화되어 권력과 차별의 기반으로 전화(轉化)하는지 를 그려낸다. 이러한 시점에 따르면 피점령 공간은 다양한 차이의 축이 여러 겹으로 교차하고 그 사이에 중층적인 힘이 작동하는 권력의 각축장 이 된다.

에미코와 톰이 처음 만나게 되는 진주군 전용 카바레는 그러한 피점 령공간의 하나의 축소판이다. 일본국민이 가진 것이라면 무엇이든 암시 장에서 팔아 허기를 달래던 패전직후의 혼란기에 일가족을 부양해야만 하는 에미코는 “유라쿠초역 옆에 있는 진주군이 잠정적으로 경영하는 카 바레” ‘펠리스(パレス)’에서 일자리를 찾는다. “구름을 찌를 듯이 큰 흑인” 이 다가와 에미코에게 클로크 일을 주는데, 그가 후에 결혼하게 되는 “펠

31) 有吉佐和子(1964), 339쪽.

32) 佐藤泉, 『『非色』—複數のアメリカ/複數の《戦争花嫁》』, 『有吉佐和子の世界』, 翰林書房, 2004, 220쪽.

리스”의 지배인 토마스 잭슨 하사이다.

카바레의 댄스홀은 “빨강, 노랑, 초록의 원색 드레스”를 입고 GI를 접대하는 여성들로 넘쳐난다. 그곳에서는 “영어도 거의 못하는 여성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상대의 말에 자지리지듯 웃고, 품에 안겨서는 교태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³³⁾ 이렇듯 병사들의 “위안”을 위해 제공되는 여성들을 “누구든 원하는 인간에게는 제공되는 여자들이었다”고 회상되는 에미코의 내러티브는, 승전국 남성과 패전국 여성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적, 계급적 권력관계의 압도적 낙차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그러나 에미코의 눈에 비친 카바레 내의 점령자와 피점령자의 관계성은 결코 점령자=지배자=강자와 피점령자=피지배자=약자의 구도로 일면적으로 환원되지는 않는다. 이 작품에서 “펠리스”는 “니그로 전문 카바레”로 설정되어 있으며, 그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마음속으로는 흑인에 대한 차별의식을 안고 있다는 사실이 묘사된다. 흑인 병사들은 점령자로서 피점령자에 대해 우위의 입장에 서지만, 인종적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는 반전된다. 승자인 미국인 사이에도 인종이나 계급에 따라 구분이 존재하며, 피점령자와의 관계 역시 일률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듯 인종과 젠더와 같은 다양한 분단선이 교차하는 구조를 포착하는 『비색』의 내러티브는, ‘점령자’나 ‘피점령자’는 결코 균질적인 집단이 아니며, 개개의 점령자와 피점령자 사이의 관계성 역시 고정된 이항대립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부각시킨다. 그곳에서는 인종/계급/젠더 등의 다양한 차이의 축이 중층적으로 작동하며, 개인들 간의 관계성은 문맥에 의존하여 결정된다.

그러한 점에서 에미코와 톱의 결혼식 장면은 매우 상징적이다. 점령국 미국의 권력을 상징하는 “US아미 제복”을 입은 톱과의 결혼을 “나는 톱의 피부에 나의 사랑의 증거를 보았고, 그의 사랑의 증거를 황금 반지에

33) 有吉佐和子(1964), 8쪽.

보고 있었다”고 묘사하는 에미코의 독백에는, 경제적 계급과 인종적 계층이 교차하는 양상이 포착되어 있다. 일본국민 대다수가 진주군의 방출물자로 허기를 달래던 시기에 에미코는 ‘미국인’과의 결혼을 통해 냉장고와 세탁기와 난방이 갖춰진 주택에서 쾌적한 생활을 누리며 PX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여 중산계급 주부의 특권을 향유한다. 그리고 에미코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흑인인 톰은 자신보다 흰 피부로 태어날 아기를 꿈꾼다.

2) 반전(反轉)하는 자유·평등·민주주의·풍요의 ‘미국’

하지만 이후의 이야기에서 점령군이 표방한 자유와 평등의 민주주의 이념과 풍요로움으로 상징되는 ‘미국’의 이미지는, 그 이면에 있는 현실에 의해 철저히 전복된다. 톰이 1951년에 퇴역하여 귀국한 후에 에미코는 생계를 위해 진주군에서 통역 일을 구하고자 하지만 “흑인 억양이 있는 영어는 곤란하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당한다. 어쩔 수 없이 워싱턴하이츠의 백인가정에서 메이드로 일하기 시작한 에미코는 이곳에서도 흑인은 배제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전후 일본의 점령 서사에서 진주군주택은 통상적으로 압도적인 풍요와 매력적인 생활양식의 발신원(発信源)으로 기억된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것이 요요기(代々木)의 워싱턴하이츠(ワシントン・ハイツ)이다. 20만여 평 넓이의 부지에 약 800세대의 주택과 미국식 라이프스타일에 필요한 다양한 부대시설을 완비한 생활공간에는, 일본인들의 선망을 불러일으키는 물질적 풍요가 응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인종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곳은 차별과 배제가 작동하는 공간에 다름 아니다. 작품에서는 50년대 초 워싱턴하이츠의 정경이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철조망으로 둘러쳐진 그 공간에는 공원과, 교회도, 초등학교와 PX,

그리고 극장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필요한 문화시설은 모두 갖추어져 있었다. 그 무렵 도쿄의 어중간한 부흥(復興) 수준과 비교할 때 그곳은 분명 문화적 소도시였다. 입구에는 MP가 철모를 쓰고 총을 들고 지키고 있었지만 철조망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서면 그곳은 밝고 평화로운 동네였다. (...) 하이츠는 분명 미국의 조계(租界)였다. 일본 안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미국인만이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었다. 그것도 백인만이.³⁴⁾

“출입금지”를 의미하는 철조망은, 일본인과 미국인 사이를 가를 뿐만 아니라 “미국” 내의 백인과 흑인 사이의 인종적 경계선과도 포개어진다. 일본인이 미국적 생활양식으로서 이해하고 언젠가 실현하고 싶은 주거의 이상적 모델로 수용한 워싱턴하이츠의 생활은 실은 백인 중산계급의 생활양식과 수준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비색』이 이야기하는 것은 백인과 비백인 사이의 분단선만은 아니다. 워싱턴하이츠의 백인부인은 에미코에게 뉴욕의 흑인들은 “단 한 사람도 행복하지 않다”고 단언하고 에미코에게 일본에 남도록 충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미코가 톰을 따라 미국으로의 이민을 결심하는 이유는 ‘혼혈아’³⁵⁾ 메리에 대한 일본인들의 차별 때문이다.

3) 방법으로서의 ‘허스토리’

그렇다면 여기까지 살펴본 전쟁신부 에미코의 점령서사를 앞서 고찰한 선행하는 점령표상과 대치해보자. 에미코의 내러티브는 점령을 둘러싼 기억과 담론의 편제를 비판적으로 재고하기 위한 시각을 제기하는 것

34) 有吉佐和子(1964), 61쪽.

35) ‘혼혈아’라는 표현은 현재는 차별어에 해당하지만 본고에서는 작품 발표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사용한다. 표기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이하 괄호 없이 사용한다.

은 아닐까?

전후일본의 지배적 점령서사는 미국=점령자=강자와 일본=피점령자=약자라는 이원대립구도에 입각하여 점령을 둘러싼 집단적 기억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들 사이에 공유된 심정과 내셔널한 일체감을 형성해 왔다. 이에 대해 '일본'과 '미국' 내부에 있는 다양한 차이의 분할선을 부각시키는 『비색』의 내러티브는, '점령'이란 개개의 국민들에게 있어 균등한 체험이 아니었음을 드러내고, 점령을 둘러싼 다양한 기억을 은폐함으로써 공동체의 체험이 담론화되어 왔음을 폭로한다.

또한 흑인 점령군 병사와 결혼한 일본인 전쟁신부가 이야기하는 개인적 기억은, 피점령자인 일본국민 역시 차별하고 굴욕을 안겨주는 편에 서기도 했다는 사실을 직시하게끔 만든다. 이로써 점령군 병사에게 종속된 여성의 표상에 의거하여 강자(強者) 미국이 안겨준 굴욕을 반복적으로 표현해 온 일본국민의 서사를 상대화한다. 자유와 평등의 이념에 기반한 점령신화에 반해 점령을 모순에 찬 역사적 경험으로 증언한다.

이렇듯 『비색』에서 아리요시는 종래의 전후서사에서 사상(捨象)되어 온 점령사의 측면을 전쟁신부 여성의 시점에서 증언하고 환기한다. 이러한 작품의 서사적 특질을 조명하는 작가의 발언이 있다.

영어에는 역사 History(히스토리)에 대한 조어로서 Herstory(허스토리)라는 말이 정착해 있습니다. 이를 '여성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번역으로 정확히는 '여성 쪽에서 바라본 역사'라는 의미입니다. (...) 독자를 전율시키는 허스토리안이고 싶은 것이 제 염원이라고나 할까요. 남성의 글쓰기에서 누락되어온 것을 여자가 다시 써야만 한다는 의식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³⁶⁾

36) 有吉佐和子, 「ハストリアンとして」, 『波』, 1978, 1, 20쪽. '허스토리'로서 아리요시의 작품 『기유의 죽음(龜遊の死)』을 분석한 金志映, 「有吉佐和子の「アメリカ」-『龜遊の死』(戯曲『ふるあめりかに袖はぬらさじ』)を中心に」, 『比較文学』, 2009도 참조.

『비색』이 발표된 시점으로부터 15년가량 지난 후의 발언이지만, 전쟁신부의 시점에서 점령사를 다시 쓴 『비색』은 그야말로 아리요시가 말한 ‘허스토리’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비색』이 제기하는 ‘허스토리’는 단순히 주변부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국민서사의 시야 바깥에 놓여온 기억을 환기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비색』은 그 서사적 특질에 있어 국민단위의 기억 구축에 길항한다. ‘일본’과 ‘미국’을 비균질적 집단으로 그려내는 『비색』의 서사는 본질적으로 내적 균질화를 동반하는 내셔널 내러티브를 뒤흔들면서 국민의 기억에 균열을 가져온다. 이러한 점에서 소설 『비색』은 점령을 둘러싼 국민공동체의 기억을 되묻는 비판적 시좌가 담긴 텍스트라 할 수 있다.

V. 『비색』이 그리는 동시대 미국 : 인종차별문제를 보는 시좌

그렇다면 『비색』은 전쟁신부의 눈을 통해 동시대 미국을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냉전적 맥락이다.

앞서 언급한 작품의 줄거리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이 작품은 동시대 미국의 인종갈등의 현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한다. 냉전시기 미국이 인종차별국가의 오명을 불식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동원하여 노력을 경주하는 가운데³⁷⁾ 이러한 작품이 다름 아닌 냉전기 문화교류의 산물로서 쓰여졌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 또한 이 소설이 전쟁신부를 주인공으로 설정했다는 점 역시 문화냉전의 문맥에서는 주목된다.

37) 메アリー·틴·이·러, 「農村青年のカリフォルニア訪問—アメリカ文化外交の場としての家族農場」, 土屋由香·吉見俊哉 編, 『占領する眼·占領する声—CIE/USIS映画とVOAラジオ』, 東京大学出版会, 2012 참조.

전쟁신부를 둘러싼 스테레오타입의 형성과정을 고찰한 야스도미 나루요시(安富成良)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신문, 잡지, 특히 주간지 등이 발신하는 부정적인 기사를 통해 1950년대 초까지, 이혼과 비극이라는 미국사회로의 적응 실패를 스캔들러스하게 전하는 서사가 정착했다고 한다.³⁸⁾ 하지만 패전과 점령의 역사가 삶에 각인된 ‘전쟁신부’와 ‘혼혈아’는 전후 혼란기의 일시적 세태와 풍속의 상징으로 여겨져 점령종결 후 짧은 기간 동안 호기심의 대상으로 미디어에 등장한 후 일본국민 사이에서는 잊혀져 갔다.

오히려 미일양국의 친선의 실천자로서 전쟁신부에 주목한 것은 미국의 냉전외교였다. 냉전기에 미국의 대외홍보선전활동을 담당한 미공보원(USIS)은 전쟁신부를 주인공으로 한 교육영화를 다수 제작하였다. 이들 영화는 미일 양국의 융합과 인종 간 조화를 연출하기 위한 소재로서 전쟁신부를 활용하였다. 또한 일본인 전쟁신부가 미국의 생활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 일본인 관객이 미국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공유하도록 유도하였다.³⁹⁾ 그런데 이 때 일본인 여성이 적응해 나가는 ‘미국’의 문화란, 백인중산계급의 가치관과 규범이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비색』은 일본의 매체와도 미국제 교육영화와도 다른 구도에서 전쟁신부의 ‘미국’을 그려낸다. 에미코가 아이덴티티의 변용을 겪으면서 미국사회로 적응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 소설은, 흑인 커뮤니티로의 정착 과정을 통해 인종차별의 실태를 극명하게 그려내면서, 마지막에는 미국사회에 강인하게 정착하는 이야기인 것이다. 그렇다면 에미코의 서사는 동시대 미국을 어떻게 그려내는지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살펴보자.

38) 安富(2009) 및 安富成良・スタウト梅津和子(2005)의 제4장 「戦争花嫁のステレオタイプ形成」을 참조.

39) メアリー・ティン・イー・ルー(2012) 참조.

에미코에게 있어 '미국'은, 일본에서 상상하던 풍요로운 나라, 점령군이 고취한 자유와 평등의 이념에 기반 한 나라라는 '미국' 이미지의 극적 반전(反轉)으로서 발견된다. "마치 과자로 만든 것처럼 예쁘고 아름다운 빌딩들이 즐비하고, 하늘은 푸르며 길가는 사람들은 최신 모드의 패션으로 몸을 감싸고 화려하고 호화로운 분위기가 충만한 도시"라는 미디어에 등장하는 뉴욕 이미지는, 도착하자마자 마주한 할렘의 풍경에 의해 송두리째 부정된다. 50년대 할렘의 실태를, 에미코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종전으로부터 8년이 지난 일본에서조차 눈부신 부흥이 이루어져 사람들의 생활은 해마다 향상되고 있는데, 전쟁에서 이긴 미국에서, 게다가 세계최대의 경제도시 한가운데에 이토록 비참하고 낮은 수준의 생활이 있을 것이라고 그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는가. 할렘-뉴욕의 흑인가는 실로 그러한 곳이었다. 실업자가 넘쳐나고 있었다. 어른도 아이도 아사만은 간신히 모면한 한계 수준에서 생활하고 있었다.⁴⁰⁾

인종문제는 빈곤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에미코가 바라본 미국의 실태는, 인종적 출신에 따라 인간이 명확하게 계층화되는 차별사회이다. 이를테면 다원적 에스닉집단으로 구성되는 뉴욕사회의 갈등의 실상을 에미코는 다음과 같이 그려낸다.

나에게도 슬슬 뉴욕을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 백인 사회에도 기묘한 인종차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욕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대인이 많은 곳하면서도 유대인은 뒤에서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듯 했다. 아일랜드인 역시 백인 중에서는 하층계급에 많이 속해있는 것 같았다. 이탈리아계 백인은 어쩐지 괘시받고 있었다. 오물처리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이탈리아인이 많았고, 이탈리아 레스토랑은

40) 有吉佐和子(1964), 115쪽.

두세 군데 예외는 있었지만 그 외의 다른 곳들은 가장 저렴한 대중식당이였다. 그들의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생선가게, 이발소, 세탁소가 있는데 다른 백인들이 경영하는 곳보다 요금이 저렴했다.⁴¹⁾

위의 인용문에서 열거된 ‘백인’의 에스닉 마이너리티 집단은 모두 흑인과의 관계에서는 우위를 점하며, 흑인들은 푸에르토리칸보다는 우월하다고 여겨진다. 19세기 말에 미국령으로 편입되어 그 후 준주(準州)로서 자치권을 인정받은 대서양 서인도제도의 푸에르토리코에서 일자리를 찾아 유입된 약 40만 명의 푸에르토리칸은, 뉴욕의 인종/에스니시티 위계의 가장 낮은 곳을 점한다. 흑인들의 할렘과 가까운 곳에 스페니쉬 할렘을 형성하여 집단으로 생활하는 그들은, “니그로 이하의 빈궁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려져 있다. 그 참담한 생활상은, 모친과 아내를 위해 손님을 끌어 오는 아이와 남편의 이야기로 전해지며, “빈민굴에서 그들은 쥐처럼 번식하고 있다”고 회자된다. 작품에서 에미코는 스페니쉬 할렘을 방문하여 좁은 주거에서 대가족이 기거하는 참담한 광경을 목도한다.

이렇듯 백인과 흑인을 넘어 다양한 에스닉집단 사이의 차별의 참상을 목격한 에미코는, “나는 아무래도 니그로가 백인사회로부터 소외당하는 것은 피부가 검다는 이유 때문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이야기하며 인종과 결부된 본질주의적 사고와 결별하고 차별이 발생하는 원리에 대해 사고를 밀고 나간다. 차별과 편견이 연쇄하고 계급과 인종이 착종하는 현실을 겪으면서 차별의 근본원인을 추궁하던 에미코는 마침내, “사람은 누구나 자신보다 어떠한 형태로든 낮은 존재를 설정하고, 이로써 자신을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⁴²⁾라는 생각

41) 有吉佐和子(1964), 145~155쪽.

42) 有吉佐和子(1964), 268쪽.

아리요시는 寺沢一(司会)·有吉佐和子·中屋健一·山内大介, 「(座談会) 今月の争点,

에 도달한다. 에미코의 내러티브에 따르면, 차별과 편견은 자아과 타자를 구별하고, 후자를 부인함으로써 반사적으로 자신을 긍정하고 싶은 심적 욕구에 기인한다. 이러한 동기에 기반한 ‘차이화(差異化)’는 쉽게 ‘주변화’나 ‘배제’의 기반으로 전회된다. 『비색』을 ‘인종소설’로 읽을 경우 그 특징은, 단순히 미국의 인종차별 현황을 고발하는 입장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인종의식을 포함한 인간이 지닌 모든 차별의식의 근원을 파고들며 차별 문제를 구조적으로 사고하고자 한 점에 있다.

위와 같이 차별이 작동하는 원리를 규정한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아이덴티티의 문제와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에미코가 자신 안에 있는 흑인에 대한 우월의식을 깨닫고 차별의 현실을 직시한 끝에 도래하는 마지막 장면은 의미심장하다.

그 순간, 나는 내 몸을 감싸고 있던 껍데기가 탁하고 소리를 내며 달걀 껍질처럼 깨지는 것을 느꼈다.

나도, 니그로이다!

내 남편도 니그로이고, 더 중요하게도 나의 아이들도 니그로인데, 왜 더 일찍 이 생각에 이르지 못했을까. 레이돈 부인은 일본에도 니그로와 같은 인간들이 있으며, 전쟁신부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 말에 내가 마음을 찢리거나 충격을 받는 일은 없었을 터이다. 나는 틀림없이 이미 변질되고 있을 것이다. 워싱턴의 벚꽃처럼! 나는, 니그로이다! 할렘에서 어떻게 나만이 일본인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인가. 나 역시 한 명의 니그로가 되어, 톱의 힘을 복돋아주고, 메리를 키우고, 새들의 성장을 지켜보지 않는다면 우월감과 열등감이 치열하게 부딪히는 인간 세상을 헤치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아, 나는 분명 니그로인 것이다! 이렇게 깨달았을 때,

黒人問題と米大統領選挙, 『婦人公論』, 1964.10에서도, 인종차별에 관한 정치적 견해로서 동일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나는 내 몸 안에서 신기한 힘이 샘솟는 것을 느꼈다.

여기에서 에미코가 발하는 “나도, 니그로이다!”라는 외침에는 두 가지 함의가 있다. 첫째는, 고정적인 아이덴티티나 본질주의의 부정에 입각한 아이덴티티 변용의 자각이다. 또한 자아와 타자를 구별하고 스스로를 상위에 놓는 우월의식이 차별을 연쇄적으로 만들어내는 구조의 한가운데에 스스로가 몸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마지막으로 발하는 이 외침은, 중심에 대한 주변을 연쇄적으로 만들어내는 억압의 이양과 차별의 재생산을 끊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⁴³⁾

작품의 결말에서 에미코는 이러한 새로운 아이덴티티에 입각하여 ‘니그로’로서의 삶을 껴안고 힘차게 살아갈 것을 결심한다. 이 장면에는 70년대에 대두한 ‘정체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와도 일맥상통하는 전략적 의미의 갱신이 나타나 있다. 에미코가 ‘니그로’를 자칭하며 이 호칭을 씹어지고 설 때, 그 의미는 본질적 카테고리로서의 ‘니그로’에서 크게 변환된다. 사토 이즈미가 이 작품을 “씩씩하게 ‘니그로’를 자칭으로 선택하는, 〈자칭하기〉를 둘러싼 이야기”라고 평했듯이, 『비색』의 힘은 지금까지 차별받아온 이들의 이름을 스스로 껴안으며 ‘니그로’임을 긍정하고, 그 이름에 있어 사회적 승인을 요청하는 내러티브에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에미코가 ‘니그로’임을 자칭하는 이야기의 결말은, 전쟁신부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작품전체의 서사와도 포개어진다.

43) 寺沢一(司会)·有吉佐和子·中屋健一·山内大介(1964)에서 아리요시는, 「아리요시 씨의 소설 속에서 주인공 에미코가 〈니그로〉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 아이는 분명 〈니그로〉라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자기자신 역시 〈니그로〉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죠.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라는 데라자와(寺沢)의 요청에, “마지막에는 역시 일본인이라는 의식을 우선 버리고, 나 자신도 〈니그로〉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본인이라는 의식은, 역시 〈니그로〉보다는 내가 위라는 의식이지요(…) 마지막에 〈니그로〉에 대한 우월감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해야만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라고 응답한 바 있다.

전쟁신부가 목소리를 내어 자신의 과거를 스스로의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비색』은, ‘나’의 과거를 재정의함으로써 긍정해가는 과정이다, 여기에서 에미코의 자기고백적 서사가 암묵적인 청자로서 일본인을 상정하고 있음을 상기한다면, 이는 지금까지 부당하게 ‘나’를 정의내려온 ‘당신들’을 향해 스스로가 재정의하고 이름을 선택함으로써 청자인 타자와의 관계성을 갱신하고, 이를 통해 역사의 무대로 ‘나’를 복권시키는 이야기인 것이다.

VI. 끝맺으며

본고에서는 일본의 전후서사에 내셔널리즘과 젠더가 교차하는 양상을 미일관계 표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전후 여성의 지위 향상은 ‘점령의 혜택을 향유한 여성’이라는 담론과 함께 ‘성공적 점령’이라는 평가와 결부되어 왔다. 동시에 전후일본은 점령군과 교섭하는 여성들의 실재하는 목소리를 국민사(national history)로부터 배제하면서도, 표상의 영역에서는 이들 여성의 이미지를 ‘미국에 종속된 일본’의 대유(代喩)로서 동원하여 내셔널 내러티브(national narrative)를 구축하고, 그것이 환기하는(남성적) 굴욕감을 토대로 국민의 일체감을 창출해 왔다. 한편 미국은 문화냉전 수행에 있어 미일 간 친선을 체현하는 기호로서 전쟁신부를 표상에 동원하여 양국 간의 친선대사로서 부각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전후담론과 표상의 편제에 대해 『비색』에서 아리요시는, 지금껏 배제되어온 전쟁신부 여성의 목소리에 의한 ‘허스토리’를 통해 다양한 층위에서 대항적 글쓰기를 시도한다.

첫째, 『비색』을 점령서사로 바라본다면, 전쟁신부 에미코의 목소리는 점령을 둘러싼 국민적 기억에 균열을 가져오는 역사적 증언으로 읽힐 수 있다. 점령군이 내세운 ‘자유’와 ‘평등’, ‘풍요로움’으로부터 배제된 전쟁

신부, 흑인, ‘혼혈아’의 시점에서 점령을 증언하는 에미코의 목소리는, ‘성공한 점령’이라는 미국의 점령 신화를 해체한다. 동시에 미국에 종속된 일본여성의 표상을 전유하여 일본국민 사이에 공유된 심정을 구축하는 점령서사에, 결코 국민적 서사로 환원되지 않는 개인적 기억으로 맞선다.

둘째로, 문화냉전의 맥락에서 『비색』을 바라본다면, 아리요시의 유향은 문화냉전의 의도가 항상 관철되지는 않았음을 시사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일본의 잡지매체에 나타난 아리요시의 이미지는 (아리요시의 의도와는 별개로) 전후여성의 지위 향상과 미일 양국의 친선을 체현하는 매체로서 기능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문화냉전에 대한 응답으로서 『비색』을 읽을 때, 이 작품은 냉전기에 미국이 발신하고자 한 자국 이미지에 길항하는 시점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미일관계의 역사서사에서 주변화 되어온 시점에서 전후 일본과 미국을 이야기하는 전쟁신부의 라이프 스토리는, 국민적 기억을 되묻고, 국민단위의 기억을 가능케 하는 기반을 해체한다. 아리요시가 『비색』에서 시도한 것은, 국민서사에서 개별서사로의 전환이다. 흑인 진주군병사와 결혼하여 뉴욕 할렘으로 이주한 ‘전쟁신부’가 자신의 반생(半生)을 이야기하는 회상기 형식을 취한 『비색』은, 부당하게 차별받아온 전쟁신부가 자기서사를 통해 긍지를 회복하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주체성 회복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비색』은 지금까지 사회의 주변적 위치에 위치해온 인종적 마이너리티 집단과 전쟁신부의 이야기를 불가분하게 교차시킴으로써 차별문제를 근원적으로 깊이 추궁할 수 있었던 것이다. **日本空間**

논문 투고일 : 2018년 11월 20일

논문 심사일 : 2018년 12월 7일

게재 확정일 : 2018년 12월 18일

참고문헌

- 조정민, 『만들어진 점령서사』, 산지니, 2009.
- 有賀夏紀, 「アメリカ占領軍向け「慰安施設」に見られるジェンダー・人種・階級 - R A A をめぐって」, 瀧田佳子(編), 『太平洋世界の文化とアメリカ - 多文化主義・土着・ジェンダー』, 彩流社, 2005.
- 有吉佐和子, 『非色』, 中央公論社, 1964.
- 有吉佐和子, 「ハストリアンとして」, 『波』, 1978.1.
- 有吉佐和子, 「ああ十年」, 宮内淳子 編, 『作家の自伝 109・有吉佐和子』, 日本図書センター, 2000.
- 「有吉佐和子のアメリカ留学」, 『週刊新潮』, 1959.12.21.
- 井上健, 「日本女性作家たちの外国との関わり - 一九六〇年代の大庭, 有吉, そして倉橋を中心に」, 児玉実英・杉野徹・安森敏隆 編, 『二〇世紀女性文学を学ぶ人のために』, 世界思想社, 2007.
- 井上謙・半田美永・宮内淳子 編, 『有吉佐和子の世界』, 翰林書房, 2004.
- 井上俊夫, 「人種問題を告発 - 有吉佐和子著『非色』」, 『日本読書新聞』, 1964.9.7.
- 植木武 編, 『「戦争花嫁」五十年を語る - 草の根の親善大使』, 勉誠出版, 2002.
- 白井吉見, 「才女時代の到来」, 『産経時事』, 1957.5.9.
- 大橋健三郎, 「日本人の見た人種問題 - 有吉佐和子『非色』」, 『朝日ジャーナル』, 1964.10.4.
- 金志映, 「有吉佐和子の「アメリカ」 - 『亀遊の死』(戯曲『ふるあめりかに袖はぬらさじ』)を中心に」, 『比較文学』, 2009.
- 金志映, 「ポスト講和期の日米文化交流と文学空間 - ロックフェラー財団創作フェローシップ(Creative Fellowship)を視座に」, 『アメリカ太平洋研究』, 2015.
- 「才女留学 - 有吉佐和子さんの渡米」, 『週刊朝日』, 朝日新聞社, 1959.11.
- 「才女よ, さようなら」, 『週刊公論』, 1959.12.
- 『坂西志保さん』編集世話人会, 『坂西志保さん』, 国際文化会館, 1977.
- 沢田章子, 「「非色」から「海暗」まで」, 『民主文学』, 1970.6.
- 島田法子 編, 『写真花嫁・戦争花嫁のたどった道 - 女性移民史の発掘』, 明石書店, 2009.
- 鈴木直子, 「一九五〇年代をジェンダー・メタファーで読みかえる」, 川村 湊・加納実紀代 외 編, 『「戦後」という制度 - 戦後社会の「起源」を求めて』, インパクト出版会, 2002.

- セオドア・グーゼン, 「檻のなかの野獣」, 平川祐弘・鶴田欣也 編, 『内なる壁』, TBSブリタニカ, 1990.
- 竹下修子, 『国際結婚の社会学』, 学文社, 2000.
- 田中貴美子, 『女の防波堤』, 第二書房, 1957.
- 千頭剛, 「有吉佐和子ー苛烈で優雅な女権宣言の文学」, 『関西文学』, 1996.1.
- 寺沢一(司会)・有吉佐和子・中屋健一・山内大介, 「〈座談会〉今月の争点, 黒人問題と米大統領選挙」, 『婦人公論』, 1964.10.
- 「天声人語」, 『朝日新聞』, 1958.4.10.
- ドウス昌代, 『マッカーサーの二つの帽子』, 講談社, 1985.
- 利倉幸一, 「私は発見した, 有吉佐和子の才女ぶり」, 『週刊東京』, 1958.1.18.
- 浜本武雄, 「人種問題へのアプローチー有吉佐和子『非色』をめぐる」, 『二十世紀文学』, 1964.9.
- 林かおり・田村恵子・高津文美子, 『戦争花嫁ー国境を越えた女たちの半世紀』, 芙蓉書房出版, 2002.
- 林房雄, 「文芸時評ー現代と取り組む『非色』」, 『朝日新聞』, 1954.6.27.
- 羽矢みづぎ, 「〈才女〉時代ー戦後十年目の旗手たち」, 『リブという革命』, インパクト出版会, 2003.
- 福田清人, 「才女才筆ー古風な世界に新しい照明あてる」, 『日本読書新聞』 950号, 日本出版協会, 1958.5.
- 本田創造, 「有吉佐和子選集 月報5 『非色』の世界」, 『有吉佐和子選集』 제8권, 新潮社, 1970.
- 正宗白鳥, 「今の文壇は才女時代か」, 『婦人公論』, 中央公論社, 1957.1.
- マイケル・モラスキー, 「アメリカと寝る, とはー被占領体験の表現をめぐる」, 『図書』, 1998.12.
- メアリー・ティン・イー・ルー, 「農村青年のカリフォルニア訪問ーアメリカ文化外交の場としての家族農場」, 土屋由香・吉見俊哉(編), 『占領する眼ー占領する声ーCIE/USIS映画とVOAラジオ』, 東京大学出版会, 2012.
- 安岡章太郎, 「戦争花嫁通した黒人問題ー有吉佐和子『非色』」, 『週刊朝日』, 1964.9.25.
- 安富成良・スタウト梅津和子, 『アメリカに渡った戦争花嫁ー日米国際結婚パイオニアの記録』, 明石書店, 2005.
- Folder Ariyoshi Sawako, box 11, series Fellowship Files, RG10.1, Rockefeller Foundation Archives, RAC, Sleepy Hollow, N.Y.
- Michael S. Molasky, The American Occupation of Japan and Okinawa: Literature

and Memory. London, New York: Routledge, 1999(마이클·모라스
키어『占領의記憶/記憶의占領-戰後沖繩·日本とアメリカ』, 鈴木直子
訳, 青土社, 2006).

Abstract

Rewriting ‘Herstory’ of Postwar Memory
- The Narrative of a War Bride in Sawako
Ariyoshi's *Hishoku* -

Jiyoung Kim

Ariyoshi Sawako(1931~1984) is one of Japan's most prominent and prolific postwar women writers; however, her provocative literary works have yet to be critically examined. This paper undertakes a thorough re-reading of Ariyoshi's novel *Hishoku* (1964) and explores how her re-writing of history provokes far-reaching insights into how nationalism and gender correlate in representations of postwar American-Japanese relations.

Ariyoshi wrote *Hishoku* after spending one year stay in New York (1959) at the invitation of the Rockefeller Foundation. The novel recounts the story of a war bride, Emiko, who married an African American GI. By presenting this first-person narration of a war bride, a voice that has been historically ignored, Ariyoshi pluralizes and re-writes “History”; in other words, she writes “Herstory.” This paper elucidates how *Hishoku* offers a counter-narrative to previous representations of the Occupation, thereby calling Japan’s national memory into question. Furthermore, this paper also examines how *Hishoku*, which was written in response to the Cultural Cold War, reflects on racial discrimination.

Key words

Sawako Ariyoshi, Occupation, Cold War, gender, race